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기쁨 제목:기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성경:데살로니가전서 5장12-28절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살전 5:12-28)

모든 책이 그렇지만, 특히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는 뜻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보자.

이번 WLI 집회에서는 ‘기쁨’이 큰 주제 였는데, 도무지 웃을 수 없는 한분을 만났다. 자기는 전혀 웃기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웃고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같이 웃어주지 못하는 고통, 웃는게 웃는게 아닌 고통이 전달되어 웃음이 나왔다. 공감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웃는 자리에 가면 덩달아 웃게 마련이다. 감정이 가지고 있는 파장 때문이다. 상대방이 웃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상대방이 울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 꼭 웃겨서 웃는게 아니지 않는가? 대부분 웃어야지 하면서 웃는게 아니라 저절로 웃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는데도 나는 웃지 않는 경우다. 그럴 경우 내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

평상시 부정적인 생각, 슬픈생각,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저절로 웃는 일이 드물어진다.

오늘은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앞 뒤 문맥을 살펴 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다.

‘항상 기뻐하라’는 현재를 중심으로 어제와 내일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야 항상이 될 거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웃는 분위기, 웃음으로 가득한 환경을 꾸며 놓고 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상 찬양하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실에서, 안방에서도, 일터에서도 차안에서도 항상 찬양을 쉽게 틀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뜻이기도 하다.

12절이 핵심적인 구절이다.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다스리는 자와 리더, 코치하는 자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 주라는 뜻이다.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기쁨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쁨의 환경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자녀들은 집에서 내내 슬픔에 싸여 있다. 그러나 오해한 부분만 도려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권면을 아끼지 않으며 다스리는 것에 성실한가? 이것을 자녀들이 잘 알아주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무슨 말을 하든지 웃음이 가득하게 된다.

질서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쁨도 돌파도 복도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어디를 가든지 질서는 있게 마련인데, 내가 알아주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로 인한 복을 내가 받는다.

그러므로 질서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 중심축이 없는 바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질서를 모르면 절대 기쁨이 없다.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2-13절 말씀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14절은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교회는 모두 리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며, 오래 참으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다.

이런 수고로움, 사소한 것 같지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 설거지, 청소, 허드렛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리더는 이런 일들을 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런 일들에 익숙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이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 교회와 관계된 일, 거룩한 일과 관계된 일, 전도와 관계된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잘 준비되어야 식탁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충성할 때 기쁘다. 땀이 날 때 기쁘다. 수고할 때 기쁘다. 기쁨이 없는가? 차라리 운동이라도 해라.

누군가 웃겨 주어야 웃으려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가 기쁨을 생산해 낸다.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다.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자들 때문에 화나고 얼굴을 찡그리는 자들은 웃기 힘들다. 이놈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못된 짓을 처단할까, 어떻게 갚아 주어야 내 속이 후련할까 생각하면 기쁨은 지옥에 가 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하면 기쁘다. 비로소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쁘다. 내가 싸움에 지더라도 기쁘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기쁘다. 아멘.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샘 솟는다.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기쁨의 영이다.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받으면 기쁘다. 예언을 기억하면 기쁘다.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선택하면 기쁘다.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면 기쁘다.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시니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시니 기뻐하라.

25 형제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으로 중보하면 기쁘다.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인사를 나누면 기쁘다.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자꾸 잊어 버리면 기쁨도 잊어 버린다.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살전 5:12-28)

-기쁨이 곧 은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돌파 제목: 진짜 돌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 잠26:16-26

-말과 관련된 세밀한 코칭.

-말이 중하나, 더럽혀지면 말만큼 악한 것도 없다.

16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 많은 사람)

17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18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시므이처럼)

19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니면 말고식 비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헐)

20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이 중요하나 거짓말이 난무한 것은 그에게 전혀 무익함)

21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는 무익함, 무의미함, 회방함)

22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3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그럴듯한 말)

24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25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26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잠26:16-26)

말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보다는 진리를 깨우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왜 영양가 없는 말이 많을까?

1. 질서를 지키자. 질서를 잃으면 백가지 고친들, 백가지 노력한들 무엇하리

2. 핵심을 공격하라.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핵심은 피해간다. 예언이나 권면 중에 핵심이 있는데, 돌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핵심을 피해간다.

-다 말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안 듣는다.

3.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말할 거리를 찾는 사람, 행동할 거리를 찾는 사람

-내가 이해했으니 문제는 없다?

-No 내가 이제 실천했으니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4.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자.

-너에게 꽃이 되어 주마.

-김춘수 '꽃'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 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